

<출 장 복 명 서 >

세계지리학회의 참석



2008년 8월

국토·지역연구실
연구위원 이 용 우

차 례

I. 출장 개요	1
II. 주요 업무 수행사항	3
1. 세계지리학연합 총회 참석	3
2. 세계지리학회의 학술프로그램 참석 및 논문 발표	8
3. 세계지리학회의 전시부스 방문 및 홍보	18
4. 학술답사 등 참석	22
III. 시사점	27
IV. 자료 목록	29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세계지리학연합(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GU) 회의인 세계지리학회(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IGC)는 세계 각국의 지리학 전문가가 참석하여 학술 발표, 학술답사 등을 통해 4년 동안 지리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발표, 토론, 공유하는 학문의 올림픽
 - 지리학은 인문 및 자연적 현상을 공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국토 및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의 기능과 매우 밀접한 학문 분야
 - 따라서, IGC 참가를 통하여 세계적인 지리학 연구동향과 연구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국토분야 연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출장의 목적은 세계지리학회회의 총회, 학술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하여 지리학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음

2. 출장국

- 튀니지의 튀니스

3. 출장기간

- 2008. 8. 11(월) ~ 8.19(화), 9일간

4. 출장자

- 이용우(국토·지역연구실 연구위원) 1인

5. 출장 세부일정

날 짜		세 부 일 정	이동
1일	8월 11일(월)	09:50 - 14:40 AF 267 인천 -> 파리 16:10 - 18:40 AF 1684 파리 -> 튀니스	항공 버스
2일	8월 12일(화)	08:00 세계지리학회의장 도착 08:00 - 09:30 전시부스 설치 및 자료 비치 09:30 - 11:30 제31회 세계지리학회의 개회식 참석 12:00 - 13:00 학술프로그램 참석 14:00 - 19:00 학술프로그램 참석	버스
3일	8월 13일(수)	08:00 세계지리학회의장 도착 08:00 - 11:30 전시부스 운영 및 홍보 11:30 - 13:00 학술프로그램 참석 14:00 - 19:00 학술프로그램 참석	버스
4일	8월 14일(목)	08:00 세계지리학회의장 도착 08:00 - 13:00 학술프로그램 논문 발표 및 토론 14:00 - 19:00 전시부스 운영 및 홍보, 학술프로그램 참석	버스
5일	8월 15일(금)	08:00 세계지리학회의장 도착 08:00 - 12:30 학술프로그램 참석 14:00 - 18:00 제31회 세계지리학회의 총회 및 폐막식 참석	버스
6일	8월 16일(토)	08:00 - 19:00 튀니스 시내 및 주변지역 학술 답사	버스
7일	8월 17일(일)	08:00 - 19:00 튀니스 주변지역 학술답사	버스
8일	8월 18일(월)	09:00 - 12:00 짐 정리 및 출발 준비 16:20 - 18:55 AF 2585 파리 -> 튀니스 21:00 - AF 262 파리 출발	택시 항공
9일	8월 19일(화)	14:55 인천공항 도착	항공

II. 주요 업무 수행사항

1. 세계지리학회의 총회 참석

□ 세계지리학연합(IGU)

○ 1871년 벨기에의 Antwerp에서 세계지리학회의(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IGC)가 처음 결성되었고, 1922년에 현재의 명칭인 세계지리학 연합(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GU)으로 출범하였음 (<http://www.igu-net.org>)

- 지금까지 1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되고 규모가 큰 국제학술기구로 세계 각국의 지리학회와 유관 학술단체들이 모여서 이룬 연합
- 유엔 산하 국제과학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ce, ICSU)와 국제사회과학협의회 ISSC(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를 구성하는 정회원

○ 한국은 1960년 스웨덴 Stockholm 총회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제29차 세계지리학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 북한은 아직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하였음

○ IGU는 산하에 156개 국가 (정회원 96개국 + 옵서버 회원 60개국)의 지리학회로 구성되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s)와 600여 단체 회원 및 수만 명의 개별 학자들이 구성하는 34개 분과 위원회(Commissions and Study Groups)가 상설 기구로 있음

- 필요에 따라 몇 개의 특별위원회, Task Forces와 Workshops 들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함

○ 세계지리학연합은 목적은 지리학적 문제의 연구를 진흥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음

-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지리학적 연구의 추진 및 조정
- 연구결과의 토론과 출판 진흥
- 지리학자들의 국제기구 업무의 참여 기회 제공
- 회원국 내 및 회원국 간 지리학적 자료 수집 및 공유의 촉진
- 세계지리학회, 지역 및 분야별 컨퍼런스, 특정 심포지움의 진흥
- 지리학 연구 및 적용을 촉진하는 모든 형태의 국제 협력에 참여
- 지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연구방법, 용어, 심볼 등의 국제적 표준화와 경쟁력 제고

□ 세계지리학회의(IGC)

○ IGU는 매 4년마다 세계지리학회의(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IGC)를 개최함

- IGC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리학자들이 참가하여 2~3주 동안에 걸쳐 논문을 발표하고 장단기 학술답사(Scientific Field Trips)를 실시함
- IGC 기간 중에 총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차차기 IGC 개최장소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2004년에는 영국 Glasgow에서 개최되었음

- IGC는 2008년 튀니스 대회 이후, 2012년에는 독일 Cologne, 2016년에는 중국 베이징(2008년 튀니스 총회에서 결정되었음)에서 개최될 예정

□ 총회

○ 총회(General Assembly)는 IGU의 최고 의결 기구로 매 4년마다 IGC와 병행하여 개최함

- 회장, 사무총장, 집행위원, 국가학회, 분과위원회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회장이 개최하고 사무총장이 주재함
- 정회원 국가의 학회(national committee)의 대표가 표결권을 가짐

○ 이번 튀니스 총회에서는 2008-2012년의 회장단 등 IGU Executive Members를 선출하였음

- President : Ronald F. Abler(United States) Penn. State University
- Secretary General & Treasurer : Woo-ik Yu(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st Vice President : Markku Löytönen (Finland) University of Helsinki Finland
- Vice Presidents
 - Fincher, Ruth (Australia) Univ. of Melbourne
 - Bellezza, Giuliano (Italy), Home of Geography
 - Ayala, Irasema Alcántara (Mexico), National University of Mexico
 - Kellerman Aharon (Israel), chair of Comm. on the

Geography of the Information Society 2000~ 2008

- Kolossov, Vladimir (Russia),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Meadows , Mike (South Africa), Univ. of Capetown
- Qin Dahe (China), vice president of the China Geographical Society
- Soyez, Dietrich (Germany), University of Cologne, Germany

○ 사무총장은 재무관(Treasurer)을 겸하며 IGU의 집행업무를 총괄함

- 이탈리아 Roma 에 소재하는 본부(Home of Geography, Villa Celimontana: www.homeofgeography.org)와 사무총장이 상주하는 도시에 개설되는 사무국(IGU-secretariat)은 사무총장의 관장 하에 있음

○ 이번 튀니스 IGU 총회에서는 서울대 류우익 교수가 사무총장 겸 재무관에 재선되어 2012년까지 직을 수행할 예정

- 류우익 교수는 지난 2004년 8월 20일 영국 Glasgow에서 열린 제30차 세계지리학연합회 총회에서 부회장 겸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임기 4년), 이어 지난 2005년 4월 24일 이탈리아 Venice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이 연합회의 차기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으로 선임되었음
- 지난 2006년 7월 7일 오스트레일리아 Brisbane에서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 최종 인준된 후 2007년 1월 1일 정식 취임하였음



<제34회 세계지리학회의 개막식> <제34회 세계지리학회의 폐막식>



<차기 세계지리학연합 집행부> <2012년 세계지리학회의 개최지 독일 Cologne으로 IGU 기 인계>

2. 세계지리학회의 학술프로그램 참석 및 논문 발표

- 세계지리학회의의 학술프로그램은 대회의 기본주제를 다루는 Plenary Sessions,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 등을 포함하는 Special Sessions, IGC 학술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Commission Sessions, Task Forces 그리고 Workshops 등 다양함

□ Plenary Sessions

○ 제31회 세계지리학회회의의 기본주제는 “Building Together our Territories”

-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29회 대회의 기본주제는 “Living with Diversity”, 2004년 글래스고우(Glasgow) 30회 대회는 “One Earth, many Worlds”였음

- 2012년 독일 Cologne의 기본주제는 “Down to Earth”

○ 기본주제와 관련하여 Plenary Sessions에서 저명한 지리학자의 기조강연이 있었음

- 주요 강연으로 “The regional ques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llen Scott), “Land-use transitions : Social and ecological responses to land change” (Eric Lambin), “Geography and Planning : a new version of an old story” (Peter Hall), “Building the Authority of Territories : The Geography of Political Centers and Capital Cities” (Van Der Wusten) 등이 있었음

○ 기본테마를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4개의 세션에서 20여 편 이상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음

- Axe I. Our Territories (8.12, 화, 14:00 - 19:00) : 사회적 산물이자, 재생의 공간이며, 이해당사자들 선택의 대상으로서 territory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음.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Territory, Country, Place - Engaging the Ecological through the Cultural” (Gavin Malone, Australia), “The evolution of the human-land relationship in the

western area of Northeast China" (Rongcheng Wang, China), "Europe in the city : the Luxembourg experience of a multi-dimensional Europeanization" (Tobias Chilla, Luxembourg) 등이 있음

- Axe II. Building (8.13, 수, 08:00 - 11:00) : 사회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기대를 territories에 대한 계획으로 전환하는 주제로서 응용과학의 하나로서 지리학적 연구가 발표되었음. 주요 발표논문으로는 "Urban planning and performativity : A cultural view on the Medina of Tunnis" (Shepers Marianne, Germany), "Geographic researches in territorial planning of Russia" (Serge V. Skaterschikov, Russia), "Development of Mekong : preventing conflict through sharing experience and institutional capacity with the Columbia River Basin" (Patrick MacQuarrie, USA) 등이 있음
- Axe III. Actors (8.14, 목, 08:00 - 11:00) : 지역, 국가, NGOs, 사회집단 등 주체 그리고 이들의 의사결정 관련 정도 및 전략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었음. 주요 발표논문으로는 "Who participates ? The Potential of Knowledge Network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in Australia" (Romain Lajarge, France), "Industrial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ities" (Anke Schüttemeyer & Nicole Reps, Germany), "Organic Growth and Urban Open Space, Planning by Consensus or Who Needs Planners ? The Case of Saint John, New Brunswick" (Keith Dewar & Wenmei Li, Canada) 등이 있음
- Axe IV. Sustainable Development (8.15, 금, 08:00 - 09:30) :

갈수록 비중을 더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주요 발표논문으로는 "Tropical Humid Upper Basin Systems - Issues and Challeng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Planning" (Khairulmaini Osman Salleh, Malaysia), "Remarks abou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Lisbon and S. Paulo" (Magda Adelaide Lombardo & José Eduardo Ventura, Brazil) 등이 있음



<제34회 세계지리학회의
기본테마>

<Plenary Sessions>

- 논문발표를 통해 territory의 지리학적 해석과 접근방법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논의되었음
 - territory는 인간생활, 주변 환경, 활동을 위한 틀로서, 지방부터 세계 그리고 지역-국가-범국가적 차원 등 모든 지리학적 범위를 지칭함
 - territory는 특정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사회, 정치적 생활의 공간적 표현으로서 다차원적인 개념을 가짐
 - territory는 지리학이 특권을 가진 연구영역으로서 territory를

연구하는 것은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사회에 대한 지리학적 고유의 기여임

- territory는 거주민과 함께 점차적으로 형성되므로 지속적인 형상이자 오랜 역사적 과정의 산물임
- 동시에, territory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통제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공간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더욱 중요함
-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 됨에 따라 그 어떤 주체도, 그들의 비중과 합법성에 관계없이, 그들만의 territory를 구축하거나 조직할 수 없으며 다만 사회 안에서 각자의 territory를 구축할 수 있음
- 복합적인 형상으로서 territory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주체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바, 이는 현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생활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탈규제와 상호 간섭에 따라 더욱 더 복잡해지는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이슈와도 밀접함
- 지리학자에게 요구되는 territory 자체에 대한 분석은 사회과학으로서 지리학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인 바, territory의 구축 및 개조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리학자의 지적 노력의 새로운 기초적인 영역이 됨

○ 제31회 세계지리학회에서는 territories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리학적 연구대상으로 이를 재인식하고 territories 자체에 대한 연구, territories 형성 및 개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체, 바람직한 territories 형상의 하나로 sustainable

development를 강조하였음

- 특히, 다양해지는 territories의 합병, 통일, 개조, 구축, 해체, 재구축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리학, 특히 계획 측면의 응용지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Special Sessions

- 특별분과(Special Sessions)는 IGU 조직과 대회학술위원회에서 제안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현재의 세계화된 지구의 상호 이해 등을 중심으로 2004년 이후 IGC가 추진한 다양한 지리학적 이슈를 강조하였음
 - 특별분과에 마련된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세션으로는 the Cultures and Civilizations for Human Development (CCHD), Mediterranean Renaissance Programm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Planet Earth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The Evolution of Geographical Thought, Climate changes in Africa : Characteristic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ALECSO(The Arab League Educational, Cultural and Scientific Organization) : an Organization for the Dialogue of Cultures, Five Decades of Territorial Land Planning in Tunisia(1956-2008),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Africa 등의 세션이 마련되어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었음
- 특별분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세션은 국제기구나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IGC가 추진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지리학적 연구와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Planet Earth 세션에서는 "Sustainable Resource Use - A Blue Print for Survival of Planet Earth : Indian Experience" (R. P. Singh, India), "Conflicts over land and natural resources : A case study of Madlangala" (Musa Khanyile, South Africa), "Integral Estimation of Ecological Condition and Quality of Anthropogenic Transforming System Environment" (Vasily V. Dmitiev, Russia)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특히, 이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New Definition of Annual Temperature Range Suitable for Global Warming Time" (Yoshitaka Fukuoka, Japan), "Charactering the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of the Urban Heat Island across a UK Urban Area" (Smith C. L. Webb, etc., Great Britain), "Traces of Tsunami Impact on the Shores of the Eastern Ionian Sea during the Holocene" (Ralf Grapmyer, etc., Germany), "Present-day and Future Contribution of Glacier Melt to the Upper Middle Fork Hood River: Implications for Water Management" (Jeff Phillippe, USA), "Impact of Future Climate Change on Terrestrial Ecosystem in China" (Wu Shaohong, etc. China), "Population and Environment - in search of a better understanding of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Daniel Hogan, Brazil), "Global Environmental Change and Human Health : an agenda for health geographers" (Mark W. Rosenberg, Canada) 등 30여 편의 논문을 통해 Holocene기에서 21세기까지 기후변화, 도

시화가 도시 미기후에 미친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지형, 산지 및 식생의 변화,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Technical Sessions

○ Technical Sessions은 전 세계 지리학자의 다양한 전공분야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크게 2008년 대회를 위해 학술위원회가 별도로 제시된 세션과 IGU 학술분과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관련 세션으로 구분됨

- 2008 튀니스 학술위원회가 기획한 세션으로는 Physical Geography, Human and Economic Geography, Applied Geography, Cross-cutting Themes 등 4개 대분야에 대하여 50여개의 세부 세션이 마련되었음
- IGU 학술분과위원회 관련 세션으로는 Applied Geography, Arid Lands, Humankind and Environment, Biogeography and Biodiversity, Climatology, Coastal Systems 등 30여개의 세부 세션이 마련되었음
- 태스크포스와 관련하여서는 Geoparks 등의 세부 세션이 마련되었음

□ 논문 발표

○ 8월 13일(수) 오전의 Technical Session에서 논문 발표와 토론을 하였음

- 논문을 발표한 세션은 T.S.T 44 Regional Development였으며, 발표일정과 영문 초록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실수로 대회 프로그램과 ABSTRACTS에 누락되었음

○ 발표한 논문은 “High Speed Rail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이며 영문 초록(200 words)은 다음과 같음

- The effects of high speed rail depend on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impacted area, and on the regional policy. The impact of KTX (Korean Train Express)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ould also be positive or negative. This will be decided later especially according to the regional policy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positive impact of KTX on the region. However,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KTX operation, it has been found that straw effect existed in certain activities. It could imped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reduce the straw effect and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construction of a wide-area economy zone should be driven forward. To maximize the effect of KTX, six wide-area economic zones are suggested : the Capital, Jungbu, Daegu, Busan, Jeonbuk, and Gwangju. These zones should be linked as a multinuclear type in the spatial structure of national territory with strong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ion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 The major tools for the construction of a wide-area economy zone are enlargement of the nucleus function of major cities

and development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between focal points, especially with the sites unde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학술프로그램 발표>

<학술프로그램 토론>

- 논문 발표 후 다음의 질의 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음
- 발표 후 고속철도 노선의 선정 배경, accessibility 측정방법,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인구변화 예측 방법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토론에서는 고속철도 개통 후 지방 정차도시나 정차도시 주변지역의 성장잠재력, 특히 구매력의 수도권 대도시나 정차도시로의 역류 여부 및 측정방법, 향후 장기적으로 예견되는 고속철도의 공간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응하는 지리학적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음
 -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분석틀과 함께 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리학 고유영역인 공간분석은 물론이고 응용지리학의 분야인 지역계획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발표라는 평을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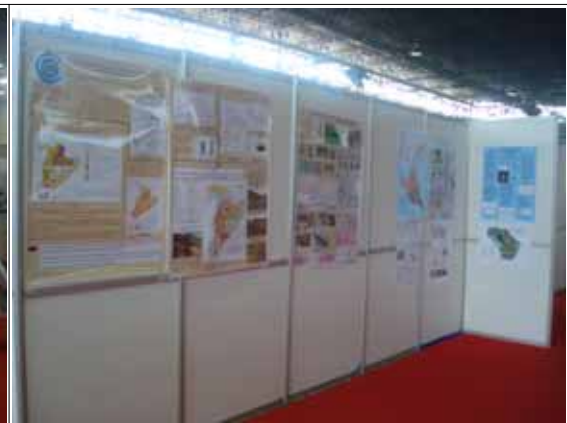
- 특히, 중국측 참가자는 현재 건설 중인 북경-상해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같은 기법으로 고속철도 효과를 분석, 진단할 수 있을거라는 코멘트를 하였음

□ 포스터 세션

- 학술프로그램으로 구두발표와 함께 포스터발표도 병행되었음
- 포스터는 학술프로그램의 모든 주제에 대하여 전시되었음



<포스터 전시장 전경>



<전시된 포스터>

3. 세계지리학회의 전시부스 방문 및 홍보

□ 전시부스 방문

○ 세계지리학회의장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IGU,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출판사 및 지도제작사의 전시부스가 설치되어 지리학적 연구성과를 홍보하였음

- 특히, 차기 2012년 대회 개최예정지인 독일은 Köln대학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팀을 구성하여 차기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 2016년 대회 개최를 신청하여 경쟁을 벌인 러시아와 중국도 전시부스를 통해 자국 홍보를 열심히 하였으며, IGU 총회 결과 2016년 대회는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지도를 제작, 전시하였음

- 독일 Leipzig에 소재한 Institut für Länderkunde(IfL, Leibniz Institute for Regional Geography)는 German National Atlas를 전시하고 이를 컴퓨터로 시연하였음
- 스페인 및 프랑스에서는 자국에서 제작한 다양한 스케일의 국가, 유럽 및 세계지도를 전시하였음

○ 특히, German National Atlas는 모두 12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연구성과물로서 향후 우리의 국가지도집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발간 재원은 연구소 자체 조달은 일부에 국한되고, 주로 연

- 방 및 주정부와 재단의 지원으로 마련되었음
- 아트라스는 IfL에서 편집하였으며, 독일의 자연,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독일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줄뿐더러, 독일에 대한 편견을 없앨 것임
 - 아트라스 작성작업에는 6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두 12권으로 구성되며 2007년 완성되었음
 - 인쇄본과 별도로 CD-ROM으로도 만들었으며, 전자편집본에는 상호작용적인 지도와 삽화가 포함되어 있음
 - 특히, iKart 모듈에서는 독일 전체가 지방행정구역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료가 생산, 비교될 수 있어서 이를 통하여 동서 간, 도농 간 등의 서로 다른 공간적 다양성이 직접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자편집본은 인쇄본에 비해 검색기능과 활성화된 참조기능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12권의 권당 주제와 발행연도는 다음과 같음 :
 - Vol. 1 society and state (2000)
 - Vol. 2 Relief, soils, water (2003)
 - Vol. 3 Climate, flora and fauna (2003)
 - Vol. 4 Population (2001)
 - Vol. 5 Villages and towns (2002)
 - Vol. 6 Education and culture (2001)
 - Vol. 7 Employment and standards of living (2006)
 - Vol. 8 Businesses and markets (2004)
 - Vol. 9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2001)
 - Vol. 10 Tourism and leisure (2000)
 - Vol. 11 Germany in the world (2005)
 - Vol. 12 Living in Germany (2006)



<2012년 IGC 개최국
독일 지리학회 전시부스>



<프랑스, 튀니지 등의 전시부스>



<독일 국가지도집 시연>



<스페인이 발행한 세계지도 일부>



<일본 국가위원회 전시부스>



<2016년 IGC 개최예정지
중국의 홍보 포스터>

□ 전시부스 운영 및 홍보

○ 우리나라는 IGU 한국위원회 전시부스와 IGU 전시부스를 운영하였음

- 한국위원회 전시부스는 대한지리학회를 중심으로 동해 지명 및 독도 소유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가GIS 안내책자, 2000년 서울 IGC에 간행한 출판물, 한국 소개 영문소개책자, 국토연구원 영문소개책자 등을 비치하여 세계 지리학자에게 호평을 받음
- IGU 전시부스는 현재 IGU 사무국이 한국에 소재한 이유로 운영하였으며, IGU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관련 문의에 응답하였음



<IGU 한국위원회 전시부스>

<동해 및 독도 홍보물>

○ 전시부스 운영이 국토연구원을 세계 지리학자에게 알릴 기회가 되므로 2007년도 KHIHS 영문소개책자, 국토연구원 보고서 영문 Abstracts, Krihs Gazette 등을 비치하여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 특히,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참가자들의 연구원에 대

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는 향후 연구원의 해외시장 개척시
참조하여야 할 점



<IGU 전시부스>

<국토연구원 홍보>

4. 학술답사 등 참가

- 세계지리학회에서는 다른 대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술프로그램
과 함께 다양한 학술답사(Scientific Field Trip)와 사회 프로
그램(Social Programme)을 마련하였음
-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한 학술답사는 반일 일정, 1일 일정,
2일 이상 일정 등
 - 반일 및 1일 일정의 학술답사는 대회 학술프로그램 일정과
중복되어서 참가할 수 없었으며, 2일 이상 일정은 출장 일정
과 맞지 않아서 역시 참가할 수 없었음
 - 따라서, 튀니스 및 주변지역 학술답사는 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에서 별도로 조직한 프로그램
을 통해 참여하였음

□ 학술답사

○ 2008. 8. 16(토) : 튀니스 및 주변지역 학술답사

- 튀니스 바르도 박물관 : 19세기 오스만 터키 시대의 왕궁건물에 자리 잡은 박물관으로 튀니지의 복잡한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카르타고, 로마, 중세의 기독교, 아랍의 각 문화권별로 전시되어 있음. 박물관 2층에 자리한 로마시대의 타일모자이크는 세계 최대의 로마시대 모자이크 컬렉션
- 튀니스 메디나 : 198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튀니스의 구시가지인 메디나는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길에 물담배, 아름다운 도자기와 카펫 그리고 가죽제품, 향료, 건과 등을 파는 재래시장(수크)이 들어서 있음
- 카르타고(Carthage) :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르타고는 고대에서 누렸던 화려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이 파괴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적이 남아 있지 않으며, 남은 유적의 대부분은 로마시대에 시작된 것. 남아 있는 로마시대 유적으로는 원형극장, 저수조, 목욕탕 등이 있음. 대통령궁이 카르타고에 있음
- 시디 부 사이드(Sidi Bou Side) : 창문, 바다, 하늘이 모두 파랗다고 해서 3청의 마을. 튀니스에서 10km 정도 북동쪽의 튀니스만 위 절벽에 자리잡고 있음

○ 2008. 8. 17(일) : 튀니스 주변지역 학술답사

- 엘젠펜(El Jem) : 로마시대 원형경기장 : 로마 콜로세움보다 약간 규모가 작음(3만석 수용)
- 케르완(Kerwan) : 이슬람 팽창 초기인 670년경에 세워진 초기 이슬람사원의 전형적인 양식인 그랑 모스크가 잘 보존되

어 있음

- 하마메트(Hammamet) : 튀니스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해안 리조트 도시

○ 튀니지는 독립 당시부터 주변의 정통 회교 국가들과는 달리 개방 정책을 채택하여 사회활동이 서구사회와 큰 차이가 없음

- 빈약한 인적, 물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기여가 큼
- 그러나 호텔, 식당, 택시 등 관광서비스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같은 서비스일지라도 요금이 상황에 따라 다르며(택시 등의 경우), 같은 요금에도 서로 차이 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호텔 등의 경우)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관광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 국가 역사이자, 발전의 자산인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보전의식이 미약하여 튀니스 바르도 박물관의 경우, 지면에 설치된 모자이크를 관람객이 밟고 다닐 수 있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전시물도 상당 부분에 달함
- 튀니지 수도인 튀니스와 여타 지역 간, 또는 해안 관광지와 여타 지역 간 인프라 등의 격차가 커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이나 내륙 인구밀집지역(도시나 마을)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
- 특히, 튀니스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건조지대이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막성 기후에 적합한 수종의 식목, 지하수 개발 등 지구온난화와 물 부족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
- 또한, 친서방적인 튀니지가 갖는 북아프리카에서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리비아 및 알제리 그리고 이집트와 모로코 등을 연결하는 기간교통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 프로그램

○ 대회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사회 프로그램으로는 8월 12일 저녁의 Cocktail Dinner Party와 8월 15일 저녁의 Gala Dinner가 있었음

- 양일 간의 저녁 모임을 통해 세계적인 지리학자와 교류할 기회를 가졌음

○ 이와 별도로, 한국 참석자를 위하여 대한지리학회장과 주한 튀니지 대사가 각각 만찬을 주최하였음

- 주요한 한국 참석자들은 류우익 세계지리학연합 사무총장, 이민부 현 대한지리학회장, 이정록 전 학회장, 권용우 차기 학회장, 김경수 건설교통부 국장 등이며 전체 참석자는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30여명



<튀니스 메디나의 재래시장> <카르타고의 로마유적 : 목욕탕>



<시디 부 사이드의 3청>

<엘젬의 원형경기장>



<케르완의 그랑모스크>

<튀니스 교외 : 올리브, 양 그리고 주민>

IV. 세계 지리학 동향 및 시사점

- 제31회 세계지리학회 참가를 통해 파악한 세계 지리학 동향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세계 지리학 동향

○ 지리학 자체의 이슈 발굴

- 이번 대회에서는 독특한 경제, 사회, 정치생활의 공간적 단위이자 표현인 territory를 지리학 연구 대상으로 재설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8개의 세션을 개설하여 영역 형성의 주체와 전략, 세계화, 신기술, 환경, 소통 등과 territory와의 관계를 집중 논의하였음
- 특히, 인류가 상호간 그리고 주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칙으로 응용지리학 즉 지역계획의 의의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음

○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지리학의 대응

- 2007-2009년의 “International Year of Planet Earth”를 맞이하여 UNESCO 등과 공동으로 기후, 건강, megacity, 자원 등 10개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2006년부터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 UN과 공동으로 “Cultures and Civilizations for Human Development” (CCHD)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도 있었음

○ 지리학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꾸준한 연구

- 도시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 산업입지 등 전

- 통적인 주제에 대한 논문발표가 대회 내내 이루어졌음
- 종합 학문인 지리학이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에게 기여하는 기본 분야의 하나인 지도 작업의 성과도 다양하게 제시되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8년의 연구 끝에 국가 전체와 지역의 현 단면은 물론이고 동태적인 발전상황을 12권의 atlas로 담아 내서, 벤치마킹 대상이자 과제로 받아들여졌음

□ 시사점

○ 국토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의 필요성

- 지리학의 세계적인 연구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추상화된 단순화된 공간이 아닌 인간 삶이 충전된 공간, 즉 territor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바, 국토 관련 연구의 기본적 방향의 하나로 지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음
- 국토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의 예로는 국토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21세기에 부합하는 지지 기술 등을 들 수 있음

○ 세계적 이슈에 적극적 대응

- 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화, 대도시, 지속가능발전 등 국제적 학문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연구주제를 세계화시켜야 함

○ 연구성과의 대국민서비스 강화

- 일반적인 보고서 발간과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피 부에 외닿는 국토 지도나 지표 등의 연구성과물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IV. 자료목록

1. 31st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Tunis 2008, August 12-15, Building together our territories, Programme.
2. 31st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Tunis 2008, August 12-15, Building together our territories, Abstracts.
3.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2004-2008.
4.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Report 2004-2008.
5.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Report 2000-2004.
6. IGC COLOGNE 2012 Down to Earth.
7. The 31st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Special Session, The 14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r Names : Geography, Sea Names, and Undersea Feature Names, August 7-9, 2008.
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2006, A historial overview of the name "Sea of Japan".
9. Germany in Maps (CD ROM).
10. Geography in Germany (CD ROM).